chudosa.com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여러분, 그리고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손녀로서, 언제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시던 든든한 편, 비밀 일기장 같은 존재였던 경호 할아버지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1938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셔서 목수의 길을 택하시고, 서울에서 공방을 운영하시며 손수 만든 가구로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정직하게, 손으로 해내는 자립심을 믿으셨고, 약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도울 때가 더 많다”는 듯 조용히 움직이셨습니다. 자상하고 유머러스한 분이셨고,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는 법을 잘 아셨습니다.

저에게 경호 할아버지는 여름밤 평상에 누워 별자리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북두칠성을 먼저 찾고, 거기서 선을 그어가며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목소리. 옆에서는 라디오가 작게 흘렀고, 손끝에는 늘 나무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제 등을 쓸어주시며 “괜찮다”라고 말해 주실 때, 세상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 따뜻한 포옹과 나무 냄새, 그 손길을 우리는 오래 그리워할 겁니다.

공방에서는 오래된 가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사랑하셨습니다. 낡은 의자 하나를 앞에 두고도 대충 넘어가지 않으셨죠. 못 하나, 사포질 한 번도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꼼꼼히 살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마지막까지 오래된 의자를 고쳐 손주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 의자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결이 매끈한 팔걸이에서 할아버지의 호흡과 손길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방 밖에서는 텃밭을 가꾸셨고, 틈틈이 고전 소설을 읽으셨습니다. 흙을 만지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셨고, 문장을 아끼는 마음으로 말을 아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할아버지와 있으면 조급함이 사라졌습니다. 듣고, 기다리고, 꼭 필요한 말만 남기는 법을, 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chudosa.com에서 나만의 맞춤형 추모사 작성

할머니 이말순 여사와 세 자녀 동윤, 지연, 성윤님, 그리고 여섯 손주들은 모두 압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셨는지. 특히 손녀의 졸업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몇 번이고 꺼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 “넌 괜찮다, 너는 해냈다”는 마음이 늘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슬픔 속에 서 있지만, 삶을 아끼는 한 사람을 함께 기립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손수 해내고, 먼저 베푸는 마음으로 하루를 쌓아 올리셨던 87년. 그 시간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 주고, 먼저 손을 내밀고, 대충이 아닌 정성으로 사포질하듯 관계를 다듬는다면, 그게 곧 할아버지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이어지는 방법일 것입니다.

경호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별자리의 이름을 알려 주던 밤, 나무 냄새가 스민 포옹, “괜찮다”는 그 한마디. 저희는 그 기억을 붙잡아 서로를 안아주며 살아가겠습니다. 고쳐서 쓰는 의자처럼, 헤진 마음도 다시 매만지며 살아가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할아버지. 우리는 듣는 법을 배웠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배움으로 서로를 지키며, 당신의 다정함을 우리 추모의 자리에서 일상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경호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도사는 chudosa.com에서 작성되었습니다.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지금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를 생성하세요chudosa.com

chudosa.com에서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 작성